예경·예참의 완성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자들은 조석의 일정한 때에 함께 모여 신앙을 위해 봉안한 삼존상 등에 예불을 올린다. 그런데 불격인 삼존을 모신 상단이 아닌 단에서 하는 예경도 모두 예불이라 부른다. 하나 전통의 '예불절차'를 보면 예불은 모두 붓다께 예를 올리는 절차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근대의 〈석문의범〉에는 예불 의례를 '예경'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예경은 공경히 예배하는 의례라는 뜻인데, 실제 불보살 앞에서 절할 때 아뢰는 대사는 '예경'이 아닌 '일심경례모불보살'이다. 유사한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경의나 공경을 표하며 예를 표하는 동작의 경례는 일반명사이나 예경은 붓다나 보살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하여 불교 용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예경은 조석예불이다. 오늘날 종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절에서는 아침 저녁 삼보를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달마야중, 문수·보현·관음·지장의 네 보살, 아라한, 제대조사, 승가야중'으로 나눠 예경한다. 칠정례라고도 하는데 7번 머리 숙여 절한다는 뜻이다.

정례 이전에 아침에는 다게, 저녁에는 향게를 아뢰고, 정례 이후에는 총원의 발원을 하며 마친다. 조석 예경은 불교도나 특종 종파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행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의 칠정례는 그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경 완성 실마리 '예불의식'
항상 마지막에는 참선 이어져
예경, 참선에 들기 위한 신행

혹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통불교라고 설명하나 명확한 진단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불보살을 모신 대웅전 등 전각에서 삼보께 두루 예경하는 칠정례는 바람직한 일상 의례라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삼보를 칭명하며 예경하는 것을 보면 칠정례 형식은 '예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인다. 예참은 신앙하는 소의경전에 등장하는 불보살을 초청하여 공양하고 예경하며 참회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칠정례 등 절만 올린다고 해서 예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경이나 예참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 '예불의식' 형식을 참고하면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처음에는 향을 올리는데, 이것은 이미 행해지고 있으니,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형식은 갖춰졌다.

다음은 찬탄이다. '천상천하무여불~'하는 게송이 주로 쓰인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 이후 탄백으로 하기도 하나 정례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 찬탄 이후 죄업을 소멸하는 주를 염송하는데 이는 복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에 경례한다. 이어 업장을 참회하고, 다른 이의 선행을 따라서 기뻐하며(수희), 불도를 이루기를 권하고 붓다께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법을 전하기를 청하며, 지혜 얻기를 발원하며, 일체 선한 업을 회향하는 '오회(五悔)'를 하면 된다.

소의경전에 의한 예참은 대개 도량과 마음의 정화를 시작으로 경전 염송, 관행을 닦는 등 열 단계로 행해지며 마지막은 참선에 든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요가를 통해서 정신집중을 얻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개발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국 선학의 파악은 이래서 탁견이다. 왜인가. 예참·예경은 참선에 들기 위한 신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연결사회와 포교 커뮤니케이션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연결사회를 맞아 명상이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초래한 정보과부하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명상이 전세계적으로 단순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불교'가 대세인 듯 보인다. 연인과 손을 잡고 불교박람회를 찾아 굿즈를 사고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뽐내는 것을 MZ스럽다고 본다.

지난달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장의 뉴진 스님 공연에서 보여진 열기는 MZ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하였다. '힙한 불교'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공식 홍보대사로서의 몫을 제대로 성취해 냈다고 할까.

헤드셋을 끼고 큰스님의 영상법문을 들으며 명상과 단주 만들기를 체험하는 '바다마음' 부스의 입장권은 개장 1시간 만에 동이 났고, SNS로 소문을 듣고 달려온 MZ세대들의 긴 대기 행렬은 불교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만한 진풍경이었다.

칠월칠석날에 낙산사에서 열린 2030세대 미혼남녀를 겨냥한 인연찾기 '나는 절로' 이벤트는 7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SNS서 MZ세대 불교 관심 높아
초연결사회 명상 붐에 주목 필요
불자, 포교 커뮤니케어터 역할을

최근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이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접근법과 디지털 미디어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불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사찰들의 당연한 포교 전략이 되었고, 전통적인 사찰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의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포교가 보편화하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포교 커뮤니케이션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정보의 즉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관심과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넘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헤드스페이스(Headspace)와 캄(Calm) 같은 명상 앱은 명상과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현대인들의 수요를 확인하게 한다.

종교의 메시지를 대중이나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포교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추종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오늘의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는 포교의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제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사찰들의 포교 전략도 체계화되어야 할 때이다. 초연결사회에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 포교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社 說

국회 정각회, '화합 정치' 이끌길

제22대 국회정각회가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2대 국회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국회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이헌승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고 한다.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시심마' 즉 '이뭐꼬'라고 쓰여진 액자를 걸어 놓고 명상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힌 이 회장은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55명이 회원 등록해 역대급 규모로 구성된 제22대 정각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곽상원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6선인 주호영, 추미해 의원 등 스타급 의원도 다수 가입해 출범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민생을 선반 위에 놓고 매일 극한의 대치를 보이며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어를 통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며 선명상 수행을 당부한 것도 정쟁을 내려놓으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쟁(爭)'을 '화(和)'하려면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는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국회 정각회원들이 '보살의 마음'으로 '화합의 정치'를 이끌길 바란다.

파주 용미리 마애불, '관리 이관' 환영한다

국내 최대 규모 석불인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보전 관리 주체가 지역 조계종 사찰인 파주 용암사로 위탁됐다.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는 9월 5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에 대한 관리 주체가 기존 파주시에서 용암사로 이관됐다.

용암사는 파주 용미리 마애불이 원만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보물 지정 이전부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협약으로 용미리 마애불의 가치를 수호해온 용암사의 역할이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사찰 인접한 성보여도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경을 할 수 없었던 사찰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산마애여래삼존상,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은 모두 국유지에 자리해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의 협약으로 파주 용미리 마애불은 여법하게 예경하며 보존할 수 있게 됐으며, 용암사는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순례기도회와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유연한 불교계와 지자체의 협치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